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년 1학기 ~ 2026년 1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3-11814	이 름	김지호
소 속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0000년 0월 0일
작 성 자	김지호 <i>jho</i>

I. 교환 파견 동기

정신없이 바쁘게 대학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원 없이 놀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매 학기 많은 활동을 병행하며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며 저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이후로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해본 경험이 없어, 외국인 친구들과 지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직접 그러한 환경에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한 번도 자취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혼자 사는 경험을 하며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명문 공과대학에서 수업을 들어보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스타트업 생태계를 해외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학업적인 목표 역시 뮌헨을 선택하고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지역 및 학교 선정 이유

처음에는 북미와 유럽을 두고 고민했지만, 운전을 하지 못해 대중교통만으로도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뮌헨은 물가와 치안이 좋아 생활하기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최종적으로 뮌헨을 선택했습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공과대학인 TUM(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뮌헨이 독일 내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특히 활발한 도시라는 점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 뮌헨공대 특징

TUM은 뮌헨 시내를 중심으로 여러 캠퍼스가 분산되어 있으며, School of Management를 비롯해 공대·자연대 등 다양한 단과대가 있습니다. 학업 분위기 같은 경우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Bachelor 학생들이 Master 학생들보다 더 큰 학업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 대

부분의 Master 과정 현지 학생들은 학업과 인턴(Working Student)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출석 체크가 따로 없고,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한 번과 몇 번의 과제, 혹은 보너스 과제로 성적이 결정된다는 점도 서울대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ESN TUMi, ESN MESA를 비롯한 교내 및 뮌헨 행사가 거의 매일 열려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학생회 주최로 옥토버페스트 스타일의 비어텐트 축제가 열리는 등 캠퍼스 안에서도 독일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뮌헨 특징

도시로서의 뮌헨은 매우 안전하게 느껴졌고, 독일 특유의 색채가 짙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넓게 퍼져있어 도시라기보다는 큰 마을 같은 분위기를 주고, 구석구석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많습니다. Olympic Park, English Garden, Isar River 등 큰 공원이 도시 곳곳에 있는 것도 뮌헨의 특징인데, 인공적으로 가꾸어졌다는 느낌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 공간들이라 내추럴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6월까지의 선선한 편이다가 7~8월에는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왔다 비가 오면 다시 쌀쌀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아 30도가 넘어가면 꽤 힘든데, 현지인들처럼 강물에 들어가거나 젤라또를 먹으며 더위를 버텼습니다. 영국 정원(English Garden) 안에는 Eisbach라는 유속이 매우 빠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 끝까지 떠내려간 뒤 트램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천연 유수풀 같은 공간이 있어 매우 재미있으니 추천합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 이점 덕분에 여행하기도 좋은 도시로, 플릭스 버스나 기차를 타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의 인근 도시들까지도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학교 및 비자 신청 절차

서울대 OIA를 통해 먼저 선발되어야 하며, 이때 토플 80점 이상이 지원 자격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선발된 이후에는 TUM에 직접 지원해야 하는데, 이때 Incoming Study Plan, Motivation Letter, CV, 토플 성적표 등을 제출하고 온라인 신청 폼에 여러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숙사도 이 단계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 배정 결과는 2월 중순쯤 되어서야 받았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이 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학교 합격 이메일뿐 아니라 기숙사 계약 서류, 공보험 가입 확인서, 슈페어konto(동결계좌) 개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슈페어konto와 공보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Expatrio를 추천하는데, 디지털 친화적이고 국제학생증도 함께 제공해주서 편리했습니다.

비자는 준비 서류가 많고, 온라인 서류 검토 후 인터뷰 예약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최대한 빨리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출국 전에 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독일 현지에서 신청해 받는 것도 가능한데, 매우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2. 기숙사

처음에는 학교를 통해 교내 기숙사에 입주했습니다. 월 370유로로, 뮌헨에서 직접 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7명이 주방과 화장실을 모두 공유하는 구조라 생활하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후 더 독립적인 공간을 찾다가, 함께 파견 온 친구가 지내던 사설 기숙사에 마침 sublet 공고가 올라온 것을 발견해 운 좋게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는 더 비쌌지만 훨씬 만족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뮌헨은 방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고 월세가 비싼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배정되더라도 본인의 성향(공용 생활 vs. 개인 공간 선호)과 맞는 형태인지 미리 따져보고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

- **Tuition fee:** 교환학생 협정에 따라 TUM 등록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Student Union Fee(학생회비, 학교 납부):** 약 97유로.
- **슈페어콘토(동결계좌) + 보험(비자용):** 약 6,082유로.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 증빙 목적의 동결계좌 예치금과 공보험 가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숙사 보증금 + 3개월치 월세(학교 납부):** 약 1,561.6유로.

IV. 학업

1. 수강신청, 수강정정, 수강취소 방법

TUM의 수강신청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직관적이지 않아 처음 신청할 때 다소 애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버디에게 도움을 받거나, 먼저 교환학생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 **Introduction to Business Law (Lecture + Exercise):** 독일 대리법(BGB/HGB) 및 감정서식(Gutachtenstil) 작성법을 다루는 수업으로, 독일 법체계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 **Introduction for Deep Learning:** 딥러닝의 기본 개념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 **Information Management for Digital Business Models:**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정보 관리 전략을 함께 다루는 수업입니다.
- **Luxury Marketing:** 럭셔리 산업의 마케팅 전략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 **Innovative Entrepreneurs:** 매주 독일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관련 연사님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 **Project Week: Design Futuring / The Future of Travel:** 일주일 집중형 Project Week 과목으로, 여행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AI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roject Week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과 주제의 수업으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학기 새로운 주제로 다양하게 열리니 추천합니다.

3. 학습 방법

팀플 발표가 있는 수업의 경우 직접 나가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업들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따로 연락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반면 시험이 있는 과목의 경우, 대부분 출석 체크도 따로 하지 않고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한 번으로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험 전 1~2주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학업량 자체는 서울대 수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도서관이 너무 덥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외국어

수업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에는 영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끼리 소통하는 환경이다 보니 오히려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 밖 마트나 상점에서는 직원들이 영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에 애를 먹었기 때문에,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 숫자 정도는 독일어로 미리 익혀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 실내화
- 상비약 (독일 약국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한국보다 제한적)
- 만능 어댑터, 유심 어댑터
- 편한 운동화
- 무선 라우터 (한국에서 가져오는게 더 싼)
- 핫팩
- 스킨케어
- 코인욕수

2. 현지 물가 수준

- **교통비:** 학생 할인 적용 시 월 약 43유로에 '도이칠란트 티켓(D-Ticket)'으로 독일 전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식비(마트):** 한국보다 오히려 약간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 **외식비:** 한국보다 다소 비싼 편입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DM, EDEKA, ALDI, Rewe, Lidl 등 마트가 잘 갖춰져 있어 장보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은행·보험 관련 업무는 Expatrio를 통해 처리해 편리했습니다. 대중교통은 트램·지하철(U-Bahn)·지상철(S-Bahn)·버스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사로 인한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지연이 매우 잦은 편입니다.

통신의 경우 전 도착하자마자 O2 매장에 가서 독일 전화번호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통신사에 비해 살짝 더 비싸긴 했지만, 매장에서 다 해주신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ESN TUMi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매일 열려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기 좋았습니다. 저는 개강 전 진행되었던 Party Animals 프로그램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한 학기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함께 봄의 옥토버페스트라고 불리는 Frühlingsfest에서 독일 전통 의상을 입고 즐긴 경험, 알바니아로 함께 여행 간 경험 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에서도 현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 재밌었는데, 보통 Master 과정 학생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울대에서 온 친구들과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대부분의 여행도 이 친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마지막 두 달 정도는 근처 헬스장을 끊어서 다녔고, 비치테니스, 클라이밍, 필라테스, 러닝,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조금씩 즐겼습니다. 비치테니스는 뮌헨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인 zhs를 통해 신청해서 참여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여러 종목을 배울 수 있어 추천합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뮌헨은 치안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체류 기간 동안 소매치기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위험하다는 느낌 없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생활 환경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6. 기타 파견 생활 팁

학교와 도시를 신청하기 전, 현지 브이로그 등을 통해 실제 생활 환경을 미리 감 잡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는 뮌헨이라는 도시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고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꽤 다른 도시 분위기가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낯선 환경에서 언어, 행정, 생활 전반을 스스로 부딪히며 해결하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과 독립성이 많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접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온 한국인 친구들과도 소중한 관계를 얻어서 기쁩니다.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당일치기 근교 나들이부터 며칠씩 이어지는 여행까지 자주 함께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특히 개강 직후 서울대에서 함께 파견 온 친구들과 렌트카로 암스테르담까지 로드트립을 다녀왔는데, 왕복 이동 중 독일-네덜란드의 소도시 4곳을 함께 둘러볼 수 있었고, 기차로는 가기 어려운 소도시를 페리로 강을 건너 방문했던 경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시골 별장 느낌의 에어비앤비에서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해 먹었던 시간도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험을 하며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이후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쓰다 보니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등 저에 대해 관찰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한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